

집중진단 중국인관광객 유치 전략과 과제 <2> 제주관광 지형 변화

중관광객 가파른 증가세 ‘여유법’에 주목

올해만 180만명 내도 예상... ‘대세’ 자리매김 여유법 시행 후 감소세... 우려속 성장통 기대

내년부터 제주에서는 중국어 교육 열풍이 불어온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중국어 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급증하는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환대문화 등 관광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한 글로벌 시책이다.
이같은 발상은 사상 처음으로 패거를 이룬 제주 외국인관광객 200만명시대의 중심에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가파른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수치로 나타난다.
올들어 10월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관광객은 166만명으로 지난해 96만명보다 72.3% 증가했다. 중국인이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시대를 여는데 효자역할을 한 셈이다.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1994년 1000명을 시작으로 2000년 5만명, 2004년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올해말이면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37.7%, 2009년부터 5년간 62.5%,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77.7%로 최근 3년간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여유법은 제주 중국인관광객의 폭증으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는 여유법을 통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상품에 쇼핑이나 옵션관광을 제약했다. 소여행상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불만을 이루던 방한 중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제주 또한 지난 피서철 매일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중국관광객의 수가 10월 들어 반토막으로 떨어졌다.
김기련 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실장은 “여유법 시행 후 여행상품 가격 상승으로 걱정되지



제주자치도는 2011년 중국 바오젠그룹 인센티브 투어단을 활용하고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주시연출 차있는 거리 일대를 ‘바오젠거리’로 지정했다.

만 모든 해외 상품들이 가격상승이 되고 그중 한국 상품 가격 수준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월말 출정을 기점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가상품으로 쇼핑 위주의 외국인 상품구조를 조정하고 한국관광의 명패를 만들었지만 이번 여유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상품으로 개선되고 이는 관광시장 건전화로 생각하고 있다”

면서 “여유법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면 2020년에는 제주에 6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여유법 시행으로 상품가격이 50-60% 상승되는데 기존 저가 상품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관광객들의 만족감 하락과 제주관광의 이미지 실추 등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경은

박사는 “160만 중국관광객의 제주 유치는 이미 중국시장에서 제주가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며 중국 여유법 시행에 따라 저가 상품에 대해서 개선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시영기자 sykang@ihalla.com

내년 선거구 ‘현행유지’ 최종안 도달

확정위 어제 10차 회의

내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확정위 ‘현행 유지’ 최종안에 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는 5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선거구 확정 논의를 이어갔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아라동·노형동 분구 및 추자·우도지역 독립 선거구 등 분구·합구·독립구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도 관계자는 “분구·합구·독립구 등 이것저것 고민이 많았지만 의원정수(비례대표)는 현행대로 간다는 것만 확인하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승석 위원장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90%까지 합의된 최종안에 도달했다”며 “분위기는 현행 유지가 우세했다”고 전했다.
선거구확정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최종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12월3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오문기기자

공무원들 반짝반짝 아이디어 주목

제주시 미래발전 시책개발팀 8일 연구과제 발표회서 제시

제주시 공무원 모임인 ‘제주시 미래발전 시책개발팀(Jeju Dream)’의 연구과제가 앞으로 어떻게 시정에 반영돼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는 2011년 8월 구성해 활동 중인 제주시 미래발전 시책개발팀의 연구과제 발표회가 8일 분관 회의실에서 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드라이브 논스톱 민원발급, 외국인 관광 마케팅 전략, 통합시정 홍보물 제작, 제주시티투어버스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드라이브 논스톱 민원발급 시스템은 옛 한국은행 청사로 종합민원실을 이전한 후 단순 발급원의 경우 민원실 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으로 행정서비스 개선과 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시정 홍보물은 제주시 각 부서에서 제작 배포하는 각종 리플릿과 책자 등을 한 권의 통합 홍보물로 만들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려는 취지의 시책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주관광안내소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 지역 특산품 전시 판매, 1대1 통역안내 등도 발표한다. 또 제주시티투어버스 운영의 전방적인 문제점 분석을 통해 테마별·지역별 다양한 코스 개발과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위한 홍보·안내시스템 확충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이 발표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와 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전문가 자문, 시책개발 공영방을 통한 직원들의 경우 민원실 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으로 행정서비스 개

제주발담 보전·활용 ‘밀그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 전수조사... 항공촬영 병행 기초자료 등 활용 계획... 보전관리종합계획도 착수

국가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 추진중인 ‘제주 발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핵심-원충지역을 대상으로 발담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제주발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제주발담 보전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 용역이 내년엔 완료되면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자연조사, 복원·정비, 축제, 석공 장인 발굴·지정, 농가소득화, 체험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제주발담의 지속가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자연조사를 토대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와 제주발담 관리조례 제정 등 제주발담을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유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제주발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제주발담 보전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 용역이 내년엔 완료되면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자연조사, 복원·정비, 축제, 석공 장인 발굴·지정, 농가소득화, 체험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제주발담의 지속가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

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1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 하는 제주발담의 보전 및 활용관리를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이 계획은 제주발담의 보전·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크게 정비개발과 환경개선, 가치제고에 중점을 뒀다. 제주발담 보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설계와 자원조사, 시범지역 경관연구용역사업으로 제주발담 보전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 용역이 내년엔 완료되면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자연조사, 복원·정비, 축제, 석공 장인 발굴·지정, 농가소득화, 체험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제주발담의 지속가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



5만여명 방문... 숙박시설 가동률 93%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개장 1년... 숙박시설 가동률 9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시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에 어린이 놀이터, 작은 인공폭포, 입간 주차장 등을 추가로 시설하고 말차오름 해맞이숲길(5.7km)도 개통하는 등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숙박·체육시설 등도 보강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khhan@ihalla.com

달 31일 현재 48000여명이 입장했으며 숙박시설 가동률은 평균 9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시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에 어린이 놀이터, 작은 인공폭포, 입간 주차장 등을 추가로 시설하고 말차오름 해맞이숲길(5.7km)도 개통하는 등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숙박·체육시설 등도 보강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khhan@ihalla.com

한남리·수산1리, 농림부 과실생산 지구 선정

서귀포시는 남원을 한남리와 성산을 수산1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과실생산 지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남리와 수산1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2개 지구를 내년도 신규 과실생산 기반조성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한남리와 수산1리에는 29억원이 투입돼 배수로·경작로·저수조 등 과수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춘다. 사업비 가운데 80%는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

금에서 지원된다.
과실생산 지구로 선정된 한남리와 수산1리는 사업구역이 90ha로 대상 지역 대부분이 노지·시설 밭급, 한라봉을 재배하는 곳으로 경작로가 협소한데 배수로도 부족해 농민들이 영농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예산으로 한남리와 수산1리에 지하수개발 1공, 저수조(200톤/일) 2개소, 용수관로 1.348km, 경작로 2.76km, 배수로 2.19km 등의 영농활동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khhan@ihalla.com

Advertisement for the 2013 Jeju City Moonjeonghang Association Member Family Unity Education Conference.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date (Nov 10, 10:30 AM), location (Jeju Women's High School),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an Oh-jung, the president.

Advertisement for the 2014 Jeju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University Freshman Admission Recruitment. It lists the application period (Oct 1-31), eligibility criteria, and application detail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nglish and Education.

Advertisement for Seogwi City Government notice. It lists various events and programs such as '2013 13th Minjidan' and 'Seogwi Cultural Heritage Museum' with dates and times.

Advertisement for 20th Anniversary of 'Buldanggolhaejang' (불당골해장국). It features a photo of a bowl of Jangjuk and text promoting their traditional Korean food and a special promotion for their 20th anniversary.